

부 고

메리앤 MARIAN 수녀

ND 4361

메리앤 제르트루드 커글린 Marian Gertrude COUGHLIN
(이전 메리 세인트 패트릭 Mary St. Patrick 수녀)



미국,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 관구

출 생: 1928년 7월 19일 오하이오 영스타운
서 원: 1948년 8월 16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
사 망: 2026년 3월 14일 샤든, 건강 관리 센터
매 장: 2026년 3월 27일 샤든, 부활 묘지

메리앤 제르트루드는 조셉과 제르트루드(헨델) 커글린 부부의 12남매(아들 7명, 딸 5명) 중 아홉 번째 자녀였다. 메리앤의 가정은 행복하고 활기차며 부지런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톨릭 가정이었다. 매일매일이 도전과 축복으로 가득했다. 메리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매우 존경했고, 자라서 수녀가 되겠다고 결심했다. 프란치스코 수녀회에서 교육을 받았지만, 클리블랜드에 사는 이모 메리 일레인 헨델 수녀를 통해 노틀담 수녀회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. 공립 고등학교에 다니던 메리앤은 2학년 때 클리블랜드에 있는 노틀담 아카데미로 전학하여 아스피란티 되었다. 1946년 2월 2일에 노틀담 수녀회에 청원자로 입회했고, 착복식에서 메리 세인트 패트릭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다.

메리앤 수녀는 클리블랜드의 세인트 존 칼리지에서 학사 학위를, 이후 워싱턴 D.C.에 있는 미국 가톨릭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. 1949년 당시에는 교사에 대한 수요가 대단했다. 수녀는 클리블랜드와 영스타운 교구, 플로리다 주 더니든, 버지니아 주 맥린에서 초등학교 교사로서 48년간의 가톨릭 초등학교 사도직 활동을 시작했다. 수녀는 헌신적이고, 철저한 준비를 갖추었으며, 꼼꼼하게 가르쳤다. 특히 수녀가 13년간 사도직 활동을 수행했던 오하이오 주 애머스트에 있는 세인트 조셉 학교의 제자들은 배움에 대한 수녀의 열정, 밝은 성품, 학생들을 향한 따뜻한 보살핌을 기억한다.

메리앤 수녀는 네 군데 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했지만, 진정한 소명은 2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음을 알고 있었다. 아이들이 성사를 받을 준비를 하도록 돕는 것은 수녀에게 큰 기쁨이자 특권이였다. 1997년 교직을 떠난 후에도 샤든에 있는 성 마리아 본당 종교 학교에서 20년 동안 이 사도직을 이어갔다. 메리앤 수녀는 ND 글로벌 미션과 SND 준회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. 기도의 여인이었던 수녀는 대가족, SND 수녀들, 많은 친구와 동료, 옛 제자들을 소중히 여겼다. 기도와 많은 편지, 이메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.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에도 새로운 컴퓨터 기술을 배우는 데 열정적이었다! 수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셨던 사도직은 성체 앞에서 기도하고 머무는 것이었다.

메리앤 수녀가 좋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품안에서 평안히 쉬기를.